

보도자료

## 대전예총에서 '신랑신부'를 찾습니다. 전통혼례 “꿈씨 혼인잔치”, 다문화 부부 모집

(사)한국예총대전광역시연합회(회장 성낙원, 이하 대전예총)는 제10회 대전국제예술제에서 진행되는 전통혼례 특별프로그램에 참여할 '다문화 부부'를 공개 모집한다.

대전예총 전통혼례 특별프로그램, <꿈씨 혼인잔치>는 대전예총 전통혼례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혼인잔치를 만들고자 매년 1회씩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9일(일)에 진행된 이벤트 전통혼례는 시민들을 하객으로 초대하는 의미를 담았으며, 무더운 날씨에도 3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쳤다.

오는 9월 27일(토)에 진행될 <꿈씨 혼인잔치>는 혼례를 치르지 못한 '다문화 부부' 1쌍을 모집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통계청의「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전체 혼례에서 다문화 혼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7.6%를 차지한다. 전년도 대비 전체 혼례는 10.7% 감소한 데 비해, 다문화 혼례는 34.6%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우리 고유의 예식 문화인 '전통혼례'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우리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며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더불어 단순한 부부의 결합이 아닌 가족과 가족, 더 나아가 서로의 문화적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대전예총 전통혼례는 사대부가 전통예법에 따라 진행한다. 이번 <대전예총 전통혼례 특별프로그램, 꿈씨 혼인잔치>도 동일하게 진행되며 신랑·신부는 각각 사모관대와 활옷을 갖추어 입고 40분간 혼례의식을 치른다.

먼저 삼현육각 연주와 축창(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의 어머니에게 기러기를 드리는 의식인 ▲전안례, 신랑신부가 맞절하는 의식인 ▲교배례, 부부로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것을 서약하는 ▲서천지례, 좋은 배우자가 될 것을 서약하는 ▲서배우례, 마지막으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술잔을 나누어 마시는 ▲근배례의 순으로 진행 된다.

시민들의 축하속에서 흥겹고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선율과 함께 신랑·신부 와 가족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리라 기대한다.

최종 선발된 다문화 부부 한쌍 에게는 전통혼례 진행과 더불어 미용, 혼례음악, 사진 · 동영상 촬영까지 혼례에 필요한 사항들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모집 기간은 8월 25일(월)부터 9월 5일(금)까지이며, 지원자격은 대전시 거주민으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혼례를 치르지 못한 다문화 부부 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가 지원 신청은 네이버 폼(<https://naver.me/F6nbHsnS>)을 클릭하여 작성하고 신청하면 된다.

선정자 발표는 9월 10일(수)이며, 혼인 기간,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쌍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예총 홈페이지([www.tjart.or.kr](http://www.tjar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대전예총 사무처(042-252-7187)으로 연락하면 된다.